

유아 정서지능 발달에 관한 연구

Developmental trend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김 경 회*

Kim, Kyoung Hoe

김 경 회**

Kim, Kyoung Hee

ABSTRACT

This investigation of developmental trends i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used the Emotional Intelligence Rating Scale for Preschool Children(Kim, 1998) to study 973 children.

Significant age differences were found in 5 factors: 'utilization of emotion', 'regulation of emotion', 'handling of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teacher' and 'handling of relationship with peers'.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cores increased with age in 3 factors: 'utilization of emotion', 'empathy', and 'regulation of emotion'. Sex differences were found in 5 factors: 'utilization of emotion', 'empathy', 'appraisal and expression of self emotion', 'regulation of emotion', and 'handling of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teacher'. In all factors, the scores of girls were higher than those the scores of boys.

- 유아정서지능(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 정서이용(utilization of emotion)
 - 정서조절(regulation of emotion)
 -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appraisal and expression of self emotion)

*신홍대학 유아교육과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I. 서론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가 빨라질수록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지 못한 경우 불안, 우울, 부적응의 증상으로 확산되어 정서적 불안이 증가한다. 인간은 정서적 상황에 따라 행동을 유발하며, 격렬한 정서 상태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개인의 심리적 기능이나, 자제력이 약화되어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 인간발달에 있어서 정서가 갖는 기능에 대한 견해가 일치된 것은 아니지만 정서가 인간이 생존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며, 인간행동을 안내하거나 동기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준다는 세 가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정미라, 박경자, 배소연 역, 1998).

특히 지난 100년 가까이 널리 받아들여지던 전통적인 학업적성 중심의 IQ개념만으로는 인간의 지적능력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확대된 개념으로의 지능을 제안하고, 성공적 삶을 예언해줄 변인을 찾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어 정서도 지적 기능을 한다고 보는 정서지능의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 (Gardner, 1983; 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6; Sternberg, 1985).

정서지능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을 일반지능과 대비되는 말로서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 하고, ‘정서의 평가와 표현’, ‘정서의 조절’, ‘정서의 이용’으로 정서지능이 구성된다고 하였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

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정서를 이용하여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Mayer, DiPaolo, & Salovey, 1990; Mayer, & Salovey, 1996). 이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Goleman(1995)은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라는 저서에서 IQ로 대표되는 일반적 지능 이외에 성공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변인을 정서지능으로 보고, 이를 ‘자기 정서 인식’, ‘정서의 조절’, ‘자기 동기화’, ‘타인과의 감정입입’, ‘대인관계기술’ 등 다섯 가지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서의 인식’은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을 아는 것, 정서의 원인이 되는 내적 상태와 내적 상태의 변화, 외적사건과 행동을 아는 것, 정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어떤 기능을 하는 지를 아는 것, 정서유발로 인한 외적 행동과 표현을 아는 것 등을 의미한다(Schwartz & Trabasso, 1984).

‘자기 정서의 조절’은 정서적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외부 상황에 대해 적절한 감정으로 반응하여 균형을 이루는 정서적 절제이다. 즉,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분노의 조절, 절제, 인내심 등이 포함된다(Gottman & Katz, 1989; Thompson, 1991)

‘자기 동기화’는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한가지 과제에 몰입하여 낙담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다. Goleman(1995)이 설명하는 ‘자기 동기화’는 주의집중, 인내심, 만족지연, 낙관성, 성취동기, 몰입 등으로 구성되는 생산적 결말을 위해 정서를 이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Salovey와 Mayer(1990)가 설명하는 ‘자기 정서의 이용’과 같다.

‘타인과의 감정입입’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타인의 정서를 공유하는

능력이다. Selman과 Demorest(1984)는 감정이 입을 타인의 조망을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Hoffman(1984)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추론이나 타인 감정에 대한 대리적 정서반응으로 돕기, 공유하기, 협동하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대인관계기술’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대인관계를 통해 삶에 기쁨을 느끼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먼저 시작하는 능력과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다(Parker & Asher, 1987). Goleman(1995)은 정서의 인식, 정서의 조절과 통제, 잠재능력의 개발을 위한 동기화, 타인과의 감정이입 등을 모두 종합한 것을 대인관계기술로 보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핵심적 기술로 자기통제 능력과 감정이입 능력이 성숙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서지능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MMES(Meta-Mood Experience Scale)나, SMMS(State Meta-Mood Scale) TMMS(Trait Meta-Mood Scale) 등이 있다(Mayer et al. . 1990; Mayer & Geher, 1996,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pai, 1995).

그런데 이런 척도는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 형식을 취하고 있어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사 관찰에 의해 유아정서지능을 평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척도로서의 타당성을 보고하였다(김경희 & 김경희, 1998; 1999).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에서는 정서지능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유아의 정서지

능을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는 능력,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를 대인관계에서 이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유아 정서지능을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대인관계기술’ 등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 ‘대인관계기술’이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로 요인이 나뉘어져서 모두 6개의 요인으로 유아정서지능이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서지능발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지능의 모든 요인을 함께 연구한 경우는 없으며, 각 하위 요인별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도 일치하고 않고 있다.

예를 들어 4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인지 발달을 연구한 Harter와 Buddin(1987)나, Whitesell과 Harter(1989), Donaldson과 Westerman(1986) 등은 아동 중기는 되어야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Wintre, Polivy와 Murray(1990), 그리고 Wintre와 Vallance(1994)는 이야기로 기술된 상황과 5가지 정서를 나타내는 사진을 제시하여 정서 인식을 연구하여 7세 9개월 된 유아가 동시에 느끼는 양가적 복합정서도 구별하고, 정서의 강도도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정서조절에 관한 몇몇 연구는 아동 중기에 이르러서야 정서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Brown, Covell & Abramovitch, 1991; 김경희, 1996), 다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의 조절이 아동 초기나 유아기에 발달한다고 보고하고 있

다(Cole, 1986; Meerum Terwogt, Schene & Harris, 1986, Reissland & Harris, 1991).

이밖에 '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대인관계기술' 등에 관한 연구는 발달적 경향을 파악하는 연구보다는 이들 능력을 가진 유아와 그렇지 못한 유아들이 후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정서의 이용' 중 만족지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3-4세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marshmallow' 실험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고 만족을 유보하는 능력을 가진 유아가 후일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었을 때 충동적이었던 유아에 비해 대학수능시험(SAT)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며,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월등히 더 적다고 하였다(Mischel & Baker, 1975; Shoda, Mischel & Peake, 1990; Yates, Lippett & Yates, 1981).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그 감정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이나 대인관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Hughes, Tingle & Sawin, 1981). 그런데 유아들은 미분화된 조망단계나, 주관적 조망단계에 머물거나(Selman & Demorest, 1984), 자기 중심적 감정입 단계에 있다(Hoffman, 1984)고 보고하고 있다.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아동은 충동적이거나 고립되어 있으며(Richard & Dodge, 1982), 비행청소년들은 대인관계 문제해결 기술과 자기평가기술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endall & Wilcox, 1980; Hains & Ryan, 198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정서지능은 유아의 정서나, 대인관계, 사회성 발달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으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만을 다루고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 발달에 관한 일치

된 결과나 발달적 경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동이 갖는 정서적 문제는 아동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도 불안요인으로 확대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재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정서장애나 정서 적응상 문제를 가진 유아의 경우 치료적 도움을 받을 기회를 가지나, 유아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치료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물론, 정서지능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교사와 유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때에 정서지능연구를 통해 발달의 각 시점에서 나타나는 정서상태나 반응형태에 관한 이해와 정서지능 발달의 일반적 모델을 구성하는 일은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이나 교육현장에서 아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반응을 인지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정서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나 능력 수준을 알 수 있다면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나 행동에 적절한 명칭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교수가 가능할 것이며, 아동이 자신의 정서반응에 대한 적절한 명칭을 붙임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 알맞게 자신의 정서표현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라는 단일 주제 하에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 별로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발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의 정서지능은 각 하위 요인별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정서지능은 각 하위 요인별로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원아 973명이었다.

유치원의 재원연령이 만 3세부터 5세까지이므로 3세, 4세 5세 반이 모두 있는 유치원으로 김천과 구미, 청주지역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아파트 밀집지역의 8개 유치원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학년과 성에 따른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성별 구성을 보면 남아가 51.3% 여아가 48.7%로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약간 많다. 연령별로는 6세 유아가 14.6%, 5세 유아가 42.5%, 4세 유아가 34.6%, 그리고 3세 유아가 10.9% 표집 되었다. 이러한 연령 분포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원아의 연령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3세 반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의 수가 현저

하게 적기 때문이다. 연령별 표집 인원이 같도록 다른 유치원에서 3세 반을 추가로 표집하지 않은 이유는 유치원 환경이나 기타 변인이 교사의 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립교육평가원(1997)의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원아의 수는 835,449명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3세가 105,528명으로 1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4세가 281,621명으로 33.71%, 5-6세가 448,300명으로 53.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에 비추어 볼 때 4세와 5세 유아가 주종을 이룬 것은 유치원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김경희, 김경희, 1998; 1999)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지능의 이론적 구성에 따라 50개 문항,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요인의 명칭과 요인별 문항 수를 보면 ‘자기 정서의 이용’은 12문항,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는 10문항,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은 9문항,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는 9문항, ‘교

<표 1> 정서지능 타당화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분포

연령 \ 성	남	녀	전체	평균 연령	연령 범위
3 세	42(4.3)*	38(3.9)	80(8.2)	3년 8.3개월	3년 2개월 - 3년 11개월
4 세	176(18.1)	161(16.5)	337(34.6)	4년 6.8개월	4년 0개월 - 4년 11개월
5 세	212(21.8)	202(20.8)	414(42.5)	5년 5.6개월	5년 0개월 - 5년 11개월
6 세	69(7.1)	73(7.5)	142(14.6)	6년 1.7개월	6년 0개월 - 6년 6개월
전 체	499(51.3)	474(48.7)	973(100)	5년 1.3개월	3년 2개월 - 6년 6개월

*() 백분율

사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는 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를 신뢰도를 보면 평정자간 일치도는 .75, .96, .99, 재검사 신뢰도는 .87, .89이다. 내적 합치도는 요인별로 .86에서 .92까지, 전체 척도는 유아의 연령별로 .94에서 .96까지이며, 요인간 상호 상관은 .16에서 .64까지로 나타났다.

척도의 타당도를 알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38에서 .84까지 분포하며, 공통분은 .25에서 .68까지 분포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6개 요인이 전체분산의 94%를 설명하고 있다.

이 척도의 문항은 정서지능을 기술하는 반대되는 의미의 쌍으로 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의 문항은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의 두 번째 문항이다.

2.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다.	$\begin{matrix} I & I & I & I & I \\ \textcircled{5} & \textcircled{4} & \textcircled{3} & \textcircled{2} & \textcircled{1} \end{matrix}$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치 않다.
-------------------------------------	--	------------------------------------

교사는 유치원의 일상 생활에서 유아를 관찰한 결과에 기초하여 두 개의 문장을 읽고, 보다 더 아동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에 평정하면 된다. 유아가 받는 점수는 각 문항별로 1점에서 5점까지이다.

3) 연구절차 및 분석

본 연구자가 6월 25일에서 28일에 걸쳐 각 유치원을 방문하여 교사를 모아 놓고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문항을 함께 읽어보면서 평정요령을 설명하였다. 교사들에게 문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다음 평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하루에 4-5명 정도의 유아를 대상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교사들이 모든 유아를 평정하

는데 걸린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간이었다. 정서지능 척도는 8개 유치원 33개 반에 재원하고 있는 987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이중 2문항 이상 누락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 973부를 분석하였다.

유아를 평정한 교사는 33명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증 갖고 있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업에서 대학원 재학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교사의 경력은 1년 5개월에서 7년 5개월까지이며, 한 교사당 담당 원아의 수는 17명에서 41명까지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아 정서지능이 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연령과 성에 따라 일원 변량분석 후 사후 검증으로 최소 유의차 검증을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정서지능의 연령에 따른 차이 검증

정서지능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은 사후 검증으로써 연령에 따른 차이가 어느 연령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최소 유의차 검증(LSD)의 결과이다.

<표 2>에서 '정서지능 전체' 점수를 보면 모든 연령에서 유의한 연령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의 정서지능의 점수도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 점수를 보면 ‘자기 정서의 이용’과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등 3개 요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점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수의 증가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느 연령에 기인한 것인지를

<표3>에서 보면 ‘자기 정서의 이용’은 3세, 4세, 5세, 6세의 모든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정서이용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는 3세 보다는 4세나 5세, 6세가, 4세 보다는 5세나 6세가 보다 타인정서를 잘 인식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세나 6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세도 6세 만큼 타인 정서에 대한 인식과

<표 2> 연령에 따른 유아 정서지능 점수의 평균과 차이검증

하위요인	연령(세) 통계치	3(n=80)		4 (n=337)		5(n=414)		6(n=142)		F
		M	SD	M	SD	M	SD	M	SD	
자기 정서의 이용		3.43	.83	3.71	.85	3.94	.83	4.12	.86	16.31***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3.58	.71	3.82	.83	3.97	.78	4.12	.71	10.23***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3.99	.75	4.16	.75	4.14	.79	4.27	.73	2.54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3.57	.80	3.80	.90	3.90	.85	4.10	.78	7.77***
교사와의 관계		4.07	.76	3.95	.96	4.05	.93	4.21	.83	2.70*
또래와의 관계		3.85	.95	3.79	.95	3.89	.86	4.06	.89	3.16*
정서지능 전체		3.69	.60	3.86	.61	3.98	.66	4.15	.62	11.65***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유아 정서지능 하위요인들의 평균에 대한 최소 유의차 검증

하위요인	연령 비교	연령 비교					
		3-4	3-5	3-6	4-5	4-6	5-6
자기 정서의 이용		*	*	*	*	*	*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	*	*	*	*	--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	--	*	--	--	--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	*	*	*	*	*
교사와의 관계		--	--	--	--	*	--
또래와의 관계		--	--	--	--	*	*
정서지능 전체		*	*	*	*	*	*

* p < .05

배려를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역시 ‘자기정서의 이용’과 같이 모든 연령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조절과 충동 억제능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 4세는 4.16점, 5세는 4.14점으로 4세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연령별 평균을 살펴보면 3세는 ‘4점인 그렇다.’에 근접하고 다른 연령의 경우 4점을 넘고 있다. 사후검증에서 3세와 6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연령과는 차이가 없다.

‘교사와의 관계’ 요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령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세 유아가 가장 낮은 점수를 얻고 있으며, 4세 유아와 6세 유아간 연령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래와의 관계’ 요인에서도 유의한 연령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연령차는 5세와 6세, 4세와 6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세가 4세나 5세 유아에 비하여 또래관계를 보다 잘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래와의 관계는 3세가 3.85점, 4세가 3.7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3세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2. 정서지능의 성에 따른 차이 검증

정서지능의 성에 따른 차이를 <표 4>에서 보면 ‘또래와의 관계’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정서지능 전체 척도에서 남아와 여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여아가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정서지능 전체 점수’나 다른 요인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 차는 4세와 5세, 6세 유아에게서 나타났다.

4세 유아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여아의 점수가 남아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 정서의 이용’,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요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 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4세의 경우 여아가 성취를 위하여 자신의 정서를 잘 이용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정서에도 민감하며, 그에 따라 잘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과 충동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의 경우도 모든 하위 요인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타인정서의 인지 및 배려’,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요인에서 유의한 성 차를 보이고 있다. 즉, 5세 여아가 남아보다 자신의 정서 상태를 잘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잘 표현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민감하여 잘 배려하고 교사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6세의 경우를 보면 하위 요인의 모든 요인에서 여아가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세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인식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고, 정서를 잘 이용하여 좋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세 유아의 경우 여아의 점수가 남아의 점수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은 아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남아보다는 여아가 정서지능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며, 연령이

<표 4> 성에 따른 유아 정서지능 점수의 평균과 차이검증

하위 요인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 정서의인 및 배려		자기 정서의인식및 표현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정서지능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세	n=42, 38													
M	3.38	3.50	3.55	3.62	3.90	4.08	3.55	3.59	3.99	4.16	3.80	3.91	3.64	3.75
SD	.93	.71	.73	.70	.81	.69	.81	.90	.78	.74	1.02	.89	.66	.53
F	1.69		1.06		1.40		1.04		1.10		1.31		1.55	
4세	n=176, 198													
M	3.53	3.90	3.64	4.02	4.14	4.18	3.62	3.99	3.82	4.09	3.76	3.82	3.73	4.00
SD	.90	.76	.93	.66	.76	.75	.97	.78	.99	.90	.95	.95	.64	.53
F	1.38*		1.95*		1.02		1.55**		1.20		1.00		1.49*	
5세	n=212, 202													
M	3.75	4.14	3.78	4.16	3.95	4.34	3.74	4.06	3.78	4.33	3.79	3.99	3.80	4.17
SD	.87	.76	.81	.70	.84	.69	.83	.84	.96	.81	.87	.84	.67	.59
F	1.29		1.35*		1.51**		1.03		1.41*		1.06		1.32*	
6세	n=69, 73													
M	3.83	4.39	3.92	4.39	4.09	4.45	3.93	4.27	4.05	4.35	3.95	4.17	3.95	4.34
SD	1.00	.58	.80	.56	.89	.48	.87	.64	.95	.67	1.02	.74	.70	.45
F	3.04***		2.05**		3.47***		1.82*		1.99**		1.87**		2.46***	
전체유아	n=499, 474													
M	3.65	4.05	3.73	4.09	4.03	4.28	3.71	4.03	3.85	4.24	3.80	3.95	3.78	4.10
SD	.91	.76	.85	.69	.82	.69	.89	.80	.96	.82	.93	.87	.67	.56
F	1.41***		1.54***		1.42***		1.23*		1.35**		1.13		1.41***	

* p<.05 ** p < .01 *** p < .001

증가할수록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보다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 정서지능의 발달경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서 시도되었는데, 연령과 성에 따른 정서지능의 발달경향에 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유치원 재원 연령인 만 3세에서 6세

사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의 경향을 보면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하위요인과 정서지능 전체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요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지능 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증가의 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4세가 되면 여러 정서를 동시에 인식하고 복합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에 있어 정서표현발달이 8세 아동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한 Winter등 (1990; 199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5세 유아의 점수가 일시적으로 4세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평정상의 오류인지 발달의 특성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정서의 이용’과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요인들은 연령에 증가함에 따라 이들 요인의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능력은 5세나 6세가 되면 발달한다고 한 Harris(1985)와 Gorss와 Harris(1988)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5세와 6세 간에는 유의한 연령차가 없었으나, 다른 연령에서는 연령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타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발달한다고 주장한 Gnepp와 Gould(1985)의 주장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5세와 6세간에 유의한 연령차가 없는 것은 6세 유아의 경우 5세 반에 속한 6세 초기이므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일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교사와의 관계’ 요인의 점수는 3세 유아의 획득 점수가 4세 유아가 얻은 점수나, 5세 유아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3세 유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유치원 현장이라는 특수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아동간의 특별한 관계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3세 유아의 경우 교사를 새로운 애착 대상으로 생각하여 교사의 요구에 순응적이며, 수동적인 유치원 생활을 하는 반면에 4세의 유아의 경우 자기주장이나 자기표현이

보다 분명하고 따라서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아직은 유치원의 집단생활에 필요한 규칙이나 질서 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고 이것이 교사에게 부정적으로 인지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교사 역시 3세 유아에게는 덜 요구하며, 유아가 유치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5세 유아는 의사소통이나 자기 표현, 과제를 수행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등 집단 생활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4세 유아보다는 많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화를 야기하는 정서적 환경, 화의 표현과 조절방안을 다루었던 신미라(1994)의 연구에서는 여아보다는 남아가, 5세 유아보다는 4세 유아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화를 표현하였다는 결과를 볼 때, 4세 유아의 적극적이고 공격적 행동양식이 교사의 평정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또래와의 관계’ 요인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추후분석에서는 4세와 6세 간에, 그리고 4세와 5세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6세나 5세 유아보다 4세 유아에 비하여 또래관계를 보다 잘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4세 유아보다 3세보다도 가장 낮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은 유아의 놀이형태에 따른 특성으로 보여진다. 3세의 경우 또래와의 협동놀이 보다는 독자놀이나 병행놀이가 많기 때문으로 또래와의 분쟁이 그만큼 적다. 반면에 4세 정도가 되면 협동놀이가 증가하나 아직 5세나 6세 보다 의사소통 기술이나 협상기술이 부족하므로 또래와의 분쟁도 많으며, 교사에게 이것이 부정적으로 인지된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유아의 발달상 3세는 4세에

비하여 신체 능력이 미숙하며, 언어능력이나 사회성이 덜 발달되어 있으므로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또래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수동적이기 쉽다. 동시에 자기 표현이나 주장 역시 소극적일 수 있다. 이러한 3세의 발달상 특성이 교실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분쟁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교사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은 듯하다.

‘교사와의 관계’ 요인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는 관찰 시기가 1학기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정서지능 발달의 일반적 경향인지 여부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정서지능 발달에서의 성 차를 조사한 결과 모든 요인과 정서지능 전체척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또래와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성 차이가 없었다. 여아의 경우는 모든 요인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아의 경우는 연령증가에 따른 발달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요인에서는 4세 남아의 점수가 가장 높으며, 5세나 6세 남아의 점수가 4세 남아보다 낮았다. 이는 남자의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우리 문화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5세나 6세 남아의 경우 남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남성에게 요구되는 감정표현의 억제를 내면화하거나, 또는 정서를 위장하여 표현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남아가 자기정서의 인식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또는 표현을 억제한 결과에 따른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요청된다.

연령별 성 차를 보면 3세 유아의 경우 성에 따른 정서지능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세의 경우는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자신의 정서를 잘 이용하여 감정도 잘 조절하고 충동을 잘 억제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다 잘 인식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의 경우 ‘자기 정서의 이용’,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와 ‘또래와의 관계’ 요인에서 성 차이가 없었다.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요인과 정서지능 전체척도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어 이들 요인에서 여아가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6세는 모든 하위 요인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교사와의 관계’ 요인과 ‘또래와의 관계’ 요인에서 남아의 점수는 4세와 5세에 감소하다가 6세에 증가하며, 여아는 4세의 경우에서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성에 따른 차이가 진정한 성 차인지 또는 평정자의 성(여자 교사)에 따른 평정 오류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경북 김천과 구미, 그리고 충북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이 결과를 우리 나라 아동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유아의 실제 행동을 반영하고 교육현장에서 관찰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의 경향을 파악하여 정서지능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을 유치

원 재원 연령으로 한정하였는데 정서지능 발달에 관한 발달 경향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 연구 대상의 연령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이나 가정환경변인, 부모의 배경변인과의 관련연구를 통해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서지능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서지능이 낮은 아동을 돕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국립교육평가원 (1997).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 김경희 (1996). 정서지능의 의미와 중요성; 토론. 1996년도 유아교육 학술대회, 성숙한 감성교육의 방향모색: 유아교육(pp. 31-38). 한국어린이육영회.
- 김경희, 김경희 (1998). 유아용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11(2), 31-48.
- _____ (1999). 유아 정서지능의 구인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12(1), 25-38.
- 신미라 (1994). 유아들의 화내는 원인 및 화내는 유형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라, 박경자, 배소연 역(1998). 유아를 위한 정서교육 - 정서중심 교육과정의 구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Brown, K., Covell, K., & Abramovitch, R. (1991). Time course and control of emotion : Ag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Merrill- Palmer Quarterly*, 37, 273-287.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6), 1309-1321.
- Donaldson, S. K., & Westerman, M. A. (1986). Development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ambivalence and causal theories of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5), 655-662.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Gnepp, J., & Gould, M. E. (1985). The development of personalized inferences: Understanding other people's emotional reactions in light of their prior experiences. *Child Development*, 56, 1455-1464.
- Goleman, D (1995). *Emotion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Gross, D., & Harris, P. L. (1988). Understanding false about emo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1, 457-488.
- Hains, A. A., & Ryan, E. B.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ve processes among juvenile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peers. *Child Development*, 54, 1536-1544.
- Harris, P. L. (1985). Children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situation and emo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General*, 114, 169-180.
- Harter, S., & Buddin, B. (1987).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simultaneity of two emotions: A five-stage developmental sequ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88-399.
-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In Izard C., Kagan, J., & Zajone, R. (Eds.), *Emotion, Cognition and*

- Behavior* (pp. 103-131).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ghes, R., Tingle, Jr. B. A., & Sawin, D. B. (1981). Development of empathic understand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122-128.
- Kendall, P. C., & Wilcox, L. E. (1980).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for impulsivity : Concrete versus conceptual training in non-self-controlled problem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80-91.
- Mayer, J. D., DiPaolo, M., & Salovey, P. (1990). Perceiving the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772-781.
- Mayer, J. D., & Geher, G. (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2, 89-113.
- Mayer, J., & Salovey, P. (1996). Emotional intelligence.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pp. 183-257). 삼성생명 사회정신 건강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Meerum Terwogt, M., Schene, J., & Harris, P. L. (1986). Self-control of emotional reactions by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ren Psychology and Social Psychiatry*, 27, 357-366.
- Mischel, W., & Baker, N. (1975). Cognitive appraisals and transformations in delay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254-261.
- Parke, R., & Asher, S. (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Reissland, N., & Harris, P. (1991). Children's use of display rules in pride-eliciting situa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3), 431-435.
- Richard, B. A., & Dodge, K. A. (1982). Social maladjustment and problem solving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2), 226-233.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 Mayer, J. D.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pp. 103-181). 삼성생명 사회정신 건강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Salovey, P., &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p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ate-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pp. 125-154).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wartz, R. M., & Trabasso, T. (1984).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In C. E. Izard, J. Kagan, & R. Zajonc(Ed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pp. 409-437).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lman, R. L., & Demorest, A. P. (1984). Observing troubled children's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 Implications of and for a developmental model. *Child Development*, 55, 288-304.
- Shoda, Y., Mischel, W., & Peake, P. K. (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78-986.
- Sternberg, R. J. (1985).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R. A. (1991). Emotion regulation and

- emotional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40), 269-307.
- Wintre, M., Polivy, J., & Murray, M. A. (1990). Self-predictions of emotional response patterns: Age, sex, and situational determinants. *Child Development*, 61(4), 1124-1133.
- Wintre, M. G., & Vallance, D. D. (1994). A developmental sequence in the comprehension of emotions : Intensity, multiple emotions, and val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509-514.
- Whitesell, N. R., & Harter, S. (1989). Children's reports of conflict between simultaneous opposite-valence emotions. *Child Development*, 60(3), 673-683.
- Yates, G. C. R., Lippett, R. M. K., & Yates, S. M. (1981). The effects of age, positive affect induction, and instructions on children's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2, 169-180.